

I'm stopping TB

내가 먼저 STOP

글_ 박연숙(본지기자)

매년 3월 24일은 세계 '결핵의 날'이다. 결핵의 날은 인류를 결핵으로부터 해방시키는 포문을 열었던 로버트 코흐의 결핵균 발견을 기억하고, 세계가 함께 기념하는 뜻 깊은 행사다.

대한결핵협회는 2008년 제26회 세계 결핵의 날을 맞아 프레스센터에서 기념행사를 갖는 한편 유공자 표창과 함께 "I'm stopping TB-내가 먼저 STOP"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결핵협회의 새 얼굴인 결핵 홍보대사에는 과거에 결핵을 앓았던 경험이 있어 결핵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가수 겸 방송인 김창렬이 선정되었다.

국외에서는 세계적인 축구 스타 루이스 피구가 결핵 대사를 맡아 WHO(세계보건기구)가 전개하는 결핵퇴치 캠페인에 동참했다. 피구는 그의 홈페이지를 통해 "세계 모든 사람들이 건강할 기회를 갖고 삶의 질을 높이기를 바란다…… 결핵은 삶에 있어 가장 불공정한 파울"이라며 앞으로 결핵대사로서 결핵과 지속적으로 싸워나갈 것임을 약속했다.

이에 앞서 세계 최고의 부자로 손꼽히는 빌게이츠는 지난 2005년 재산의 절반인 50조원을 구제기금으로 내놓았는데 이는 '빌&멜린다 게이츠재단'을 통해 전세계 결핵, 에이즈 및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기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그 후에도 빌게이츠는 재단에 지속적으로 기금을 내며 결핵 퇴치를 지원하고 있다. 세상에는 수많은 질병이 존재하는데 유독 그가 결핵이나 에이즈, 말라리아에 애착을 갖는 이유는 이러한 질병이야말로 인간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질병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개도국이나 선진국에서는 후진국이 안고 있는 결핵문제와는 또 다른 양상의 결핵 문제를 안고 있다. 후진국에서 결핵이 생존권의 문제라면 결핵 치료를 위한 사회적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결핵에 대한 문제의식 부재, 결핵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과 싸워야 하는 것이다.

결핵관리의 현장에서 간혹 "결핵에 걸린 것이 죄도 아닌데 환자들은 누가 알세라 '쉬쉬' 하고 꺼려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사회적 여건이나 의학 여건을 뒤따라 가지 못하는 의식구조가 안타깝기만 하다.

올해 대한결핵협회가 결핵의 날 기념행사와 함께 청계광장에서 열리는 캠페인을 눈여겨 볼만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청계광장에 결핵이동검진차량, 결핵상담실 및 결핵홍보부스를 설치하고 결핵에 대해 궁금해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상담 및 검진을 해주는 한편, 오픈 상담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홍보행사를 갖는다.

결핵홍보 부스에서는 결핵 홍보 프로그램 상영 및 판넬 전시, 관련 자료를 배포하고 "I'm stopping TB"를 주제로 결핵퇴치 표어를 공모하고, "결핵퇴치"로 즉석에서 4행시 짓기 및 결핵 OX 퀴즈이벤트를 함께 실시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게 된다. 참가자들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한다.

이밖에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과 협회장, 홍보대사가 결핵검진을 체험해보고 시민들에게 결핵홍보 전단을 직접 나누어주는 등 국민 건강을 지키는 자리에 있는 책임자가 결핵을 알리는 데 직접 나설 예정. 결핵홍보캠페인은 서울 이외에도 전국 11개 시도지부에서 함께한다. †